



19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윤석진 원장,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 원광대학교 박성태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및 글로벌 인재육성, 기술개발 등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바이오 산업 육성 기관·기업 연대 가속화

전북특별자치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협약 체결

오가노이드사이언스·람다바이오로직스와도 손 잡아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2월 29일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바이오 분야 기관·기업들과 연대를 강화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19일 전북자치도청에서 전북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및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2건의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윤석진 원장,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 원광대학교 박성태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한 4차간 협약에서는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및 글로벌 인재육성, 기술개발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KIST는 지난 1966년 최초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되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 발전전략을 수립하였고, 현재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적 연구개발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위상을 높이는 기관이다.

전북자치도에는 KIST 전북분원이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연계한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2008년 1월 개원해 첨단 복합소재·부품 연구개발의 중심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또 김관영 도지사와 오가노이드사이언스(주) 유종만 대표, 람다바이오로직스 안드레 거스 대표, 익산시 정현을 시장, 전북대학교 송철규 연구부총장, 원광대학교 박성태 총장,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등

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김병휘 센터장 등이 참여한 7개 기관·기업간 협약에서는 바이오 분야 공동 프로젝트 수행과 전북특별자치도 동물 관련 산업 증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오가노이드 분야를 가장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대표 앵커기업인 오가노이드사이언스(주)는 지난 2월 1일 전북자치도와 투자 협약을 맺었으며, 원광대학교 내에 사무실과 연구실을 갖추고 도내 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병원과 협력해 레드바이오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람다바이오로직스는 동물대체 시험 전문기업으로 독일 라이프치히에 본사를 두고 있다. 미국, 독일, 한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에 AF(Animal-Free) 솔루션을 제공, 다양한 동물대체시험법을 연구자나 업체에게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로 알려져 있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 산·학·연·병·관으로 구성된 특화단지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특화단지 유치 공동 대응,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전북자치도가 국내 첨단 바이오산업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며,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도 반드시 성공해 협약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KIST 윤석진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한 전북이 첨단바이오 산업의 중심지이자 국가 경제발전의 한 축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KIST가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지역 혁신생태계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대흥씨씨유, 액화탄산가스 생산공장 준공

새만금 국가산단에 들어서... 친환경 이산화탄소 포집 플랜트 설비 연 4만2000톤 생산

군산시(시장 김임준)는 19일 (주)대흥씨씨유가 새만금 국가산단단지액화탄산가스 생산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임준 군산시장, 안재호 한국농어

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등 유관기관과 기업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주)대흥씨씨유는 이번 준공으로 새만금산단(2공구, 8,216㎡)에 발전소 배기가스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액화공정을 거쳐 액화탄산가스를 생산

하는 플랜트 설비를 통해 연간 4만2,000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주)대흥씨씨유의 군산 새만금산단 액화탄산가스 생산공장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액화탄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동시에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여 국가의 탄소중립 정책에도 적극 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군산시는 투자기업이 지역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산단 내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허가,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제11회 전북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공개모집

6개 부문별 각 1명... 5월 '제1회 청소년박람회' 서 시상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청소년의 달을 앞두고 모범청소년에게 수여하는 '제11회 전북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수상후보자를 4월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해 △효행 △선행 △면학 △예·체능 △국제화 △장애 6개 부문으로 시상한다.

모집 대상은 시상일 기준 수상후보자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3년 이상 관련 공적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이다.

수상후보자 추천은 '전북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에 의거, 도내 시장·군수, 각급 학교장(대학총장 포함), 도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가 가능하며, 추천자를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분야별 1명을

최종 선별한다. 모집 공고문은 19일부터 4월 16일까지 4주간 도 홈페이지 '전북소식 / 공고·고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4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도 교육협력추진단으로 공문 또는 이메일(dwts80@korea.kr) 접수가 가능하다.

시상은 5월 23일 개최 예정인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 개막식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전북자치도 도보, 홈페이지, 홍보지 등에 수상 공적 등이 게재될 예정이다.

나혜수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청소년의 달을 맞아 효행, 선행, 면학 등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이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의 영예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적극적인 후보자를 널리 추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전북설명회

전북자치도, 19일 데이터 수요 기관·기업 대상 홍보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함께 19일 전북테크비즈센터 다목적실(2층)에서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4년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전북지역 설명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데이터 구매·가공 지원을 통해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고, 모든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한다.

대상기관은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하거나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예비창업자(청년기업 포함)와, △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공공·연구기관·대학 등으로 일반 및 사회현안 분야를 지원한다.

2024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총 1,340건(463억5,000만원) 규모로 데이터 구매 630건(최대 500만원), 일반가공 160건(최대 3,200만원), 인공지능(AI) 가공 550건(최대 5,400만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도내 데이터 구매와 데이터 가공이 필요한 수요기업·기관은 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

(<https://kdata.or.kr/pms>)에 접속해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데이터 구매와 일반가공은 4월 1일까지, 인공지능(AI) 가공은 4월 2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설명회에서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전북형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인 '데이터 활용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설명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창석 전북자치도 미래산업과장은 “데이터 구매와 가공이 필요한 도내 기업들이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많이 참여해 수혜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서비스·제품을 개발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데이터산업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3월 15일 과기부 산하 데이터 전문기관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데이터 수요기업 발굴 및 데이터 활용 성과 확산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 있다.

/김재훈 기자